

전남교육청, 코로나19 대비 모의훈련

개학 후 실제상황 가정...단계별 요령 숙지

전남도청·전남감염병지원단 합동 훈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조심스럽게 등교 개학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최근 확진자 발생 대비 영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전남도청의 협조 아래 도교육청 5층 상황실과 22개 시·군 교육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으며 교육청 관계자, 각급 학교 교장(교감), 보건교사, 담임교사, 지역보건소 관계자 등이 1팀을 이뤄 총 144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남도청과 전남감염병지원단에서 역학조사관 등 6명이 참

여해 모의훈련 기획과 시나리오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진행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였다. 훈련은 등교 개학 후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4단계로 나눠 대처요령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전남감염병지원단이 피드백을 하며 참여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훈련이라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치 체육건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볼 때 머지않아 등교 개학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다.”면서 “오늘 영상 모의훈련이 등교개학 후 예기치 않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해남군수, 교육장 원격수업 깜짝 등장

원활한 원격 교육 지원

해남교육청은 지난 24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함께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초·중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수업 시작 전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을 응원하였다.

옥전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서는 구글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학년 수준에 맞게 EBS 시청, 학습꾸러미,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제일중학교 2학년 수업에서는 미리 제작한 콘텐츠와 구글슬라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한 후 과제 수행, 실시간 공유 및 피드백을 하는 수업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EBS자료와 e학습터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원격수업 참관으로 교직원 간의 협업, 학교와 가정의 교

육적 소통을 확인하며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명현관 군수는 “온라인 개학과 따른 원격수업의 성공적 운영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소통하며 원격수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며 “해남군에서도 해남교육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비상시기에 해남지역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성공적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개학시기에 맞춰 방역을 위해 학생 1인 10매 분량의 마스크를 관내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장성모 교육장은 “어려운 시기에 해남교육공동체 모두가 책무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원격수업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격려하고 “교육적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학교와 소통하며 지원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정승호 기자

순천대, 지역 혁신·성장 위한 첨단부품소재공학과 신설

순천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적 지식과 부품소재 기술 관련 융합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부품소재공학과’를 신설하고,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순천대는 입학정원 40명인 ‘첨단부품소재공학과’를 본부 직속으로 운영하며, BK21 PLUS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와 연계하여 첨단부품소재기업 현장

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인공지능·전사모사 등 창의적 지식 기반의 ▲물리·화학·전자·기계 분야 융복합 교육 ▲산업체 맞춤형 실습교과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현장 문제 중심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은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교육·연구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꾸준한 쇄신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급변하는 고등교육환경에 대한 대응과 학사운영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브레인스토밍, 포럼, 공청회 등의 절차와 구성원 합의를 거쳐 확정된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을 12월 18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는 4월 말경에 교육부의 승인이 예상되는 이 학사구조개편안은 ▲기존 3개 학과(웰빙자원학과, 식물약학과, 생물환경학과)를 1개 학과(농생명과학과)로 통합 ▲고분자화학공학부의 2개 전공(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을 폐지하여 단일학과인 화학공학부로 전환 ▲자유전공학부 및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 신설 ▲기존 학부제(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기계우주항공공학부)의 화학적 통합인 전공트랙제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암교육청, 코로나19 의료진 감사... ‘# 덕분에 챌린지’ 물결에 참여



영암교육청은 지난 24일 ‘의료진 덕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의료진 존경의 뜻을 담아 ‘#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

혔다. ‘#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 상황 속 일선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 참여형 응원 캠페인이다.

이에 영암교육청에서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상징하여 이미지화한 만화가 이정현님의 ‘덕분에’ 응원그림을 이용하여 전제 직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치는 존경과 감사의 수어 동작을 취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인수 장학사는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60만 명,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세계적 재난 속에서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는 한자릿대로 내려왔다. 우리

의료진들은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롭다. 이 모든 것이 다 의료진 ‘덕분’이다. 그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학교로 돌아가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우리 청 직원들의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암군보건소를 응원 방문한 김성애 교육장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교육청, K-에듀파인 컨설팅 실시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회계시스템 맞춤형 지원



K-에듀파인 자료 화면

달간 사립유치원별 현장 맞춤형으로 3개월을 2일씩 온종일 컨설팅을 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부문을 단계별로 나누어 유치원 재무회계 상태를 파악한 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0년 예산안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 후 월별 수입과 지출에 이르기까지 논스톱 맞춤형 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사립유치원 한 원장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회계 전반과 시스템 사용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니 이해가 빨랐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화순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멘토의 1:1 연결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